

# 포장 배추·무, 비용 줄이고 안심 구매



농업정책 | 배추·무의 반입 금지하는 '포장유통 시행방안' 확정

농림부는 내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에서 포장되지 않은 배추·무의 반입을 금지하는 '포장유통 시행방안'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배추·무는 전국 공영도매시장 거래량의 17.7%를 차지하지만 그동안 포장화율이 낮아 물류 효율화에 어려움이 있었다.

농림부 관계자는 “내년부터 배추·무의 포장유통이 전면 확대되면 거래의 투명화, 상품성 제고, 유통비용 절감 등의 효과를 거둘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농림부는 포장출하에 따른 농민들의 비용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포장재별로 일정비율을 지원키로 했다. 포장재별 지원비율은 △그물망 90%(117원) △골판지상자 60%(480원) △플라스틱상자 80%(384원) △PE대 90%(171원) 등이다.



민화로 보는 농업정책 핫사이데집

## 배추와 무의 멋진 변신



-정광숙



① 민화로 보는 농업정책, 핫사이데집 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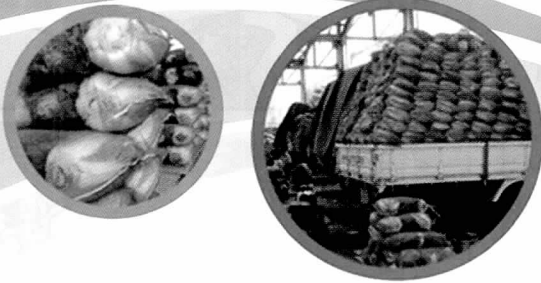
② 민화로 보는 농업정책, 핫사이데집 ②



③ 민화로 보는 농업정책, 핫사이데집 ③



④ 민화로 보는 농업정책, 핫사이데집 ④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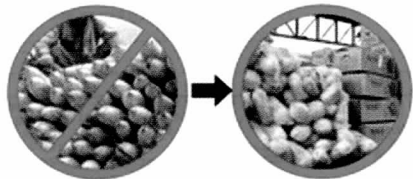
## 이젠 배추·무·마늘도 포장상품화 시대!

### 출하자는 주소지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지원에 사업계획서 제출

출하 후에는 포장재 구입 세금계산서를 관할 농산물품질관리원 출장소에 제출해 보조금 지원 신청

### 포장유통 정착을 위해서는 유통주체별 적극적 역할 필요

- ▶ 출하자(생산자, 산지조합, 산지유통인)
  - 규격별 선별·포장으로 상품성 향상, 가격경쟁력 제고
  - 포장출하에 맞게 재배, 농산물표준규격에 맞는 포장재 사용
- ▶ 중도매인- 재선별·재포장 중단, 공정한 가격 평가 우선 구매
- ▶ 도매시장법인- 정확한 거래정보 제공, 우선 경매 및 구매 유도
- ▶ 지자체- 관할 도매시장별 포장출하 상황 점검 등 관리 강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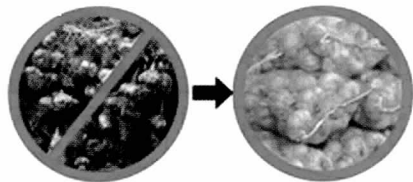
## 도매시장에 농산물 표준규격으로 포장출하된 마늘은 국산!

### 마늘 주대를 산지에서 잘라 포장출하하면 출하비용 획기적 절감

국산에 대한 소비자신뢰를 높이기 위해 주대길이를 5cm 이하로 조정

- ▶ 포장마늘 유통에 따른 각종 비용을 정부가 지원
- ▶ 공동선별비: 수탁 40%(50원/kg), 매취 30%(38원/kg)
- ▶ 포장재비: 실소요액의 60%까지 지원

- ▶ 주대를 잘라도 마늘의 신선도·부패성·감모율 등 상품성이 저하되지 않으며, 주대를 5cm 이하로 자른 통마늘은 수입산과 구분이 쉽습니다.
- ▶ 뿌리가 있으면 국산마늘이라 믿어도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공영도매시장



# 배추·무·마늘 포장유통으로 상품가치 업그레이드!

배추·무·마늘 포장상품화  
제값받기·투명거래 지름길

## 전국 공영도매시장 배추·무 포장유통 본격 실시

2007년 1월 1일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규격화된 포장배추·무만 반입, 유통합니다.

## 산지 포장출하 비용은 정부가 지원

(단위 : 원)

	그물망	골판지	플라스틱상자	PE대
포장재기준가격/망, 상자	130	800	480	190
지원비율 (포장재가격 대비)	90%	60%	80%	90%
평균단가	117	480	384	171

## 출하자는 적정 포장재를 선택, 포장

도매시장에서 재선별·재다듬지 않도록 규격별 선별포장으로 품질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반드시 표준규격 표시를 해야 포장재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추·무 포장유통은 규격화를 통한 상품성 및 가격경쟁력 제고와 유통비용 절감, 시장환경 개선을 위한 우리 모두의 자율적 약속입니다.



문의 : 농림부 유통정책과 02-500-1823~4

